



2025년 추석 명절에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



묵상기도 **인도자**

명절을 맞아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같이**

-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대표기도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시편 121편 1-8절 **다같이**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5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 씬 **인도자(뒷면참조)**

기도제목 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9-13)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5년의 남은 기간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온 가족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예문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 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 되시는 이유는

첫째,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의지하게 되는 돈, 명예, 권력은 유한한 것이기에 우리들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도움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키시다'를 원어로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세심하게 돌보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본문에서 여섯 번이나 사용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밤에 눈을 감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시며, 항상 자기 백성에게 초점을 두고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에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므로 광야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있는 '출입'에 사용된 히브리어 어구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하는 일을 비롯한 지휘관의 임무를 가리킬 때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상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수많은 위험과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든 위협과 환난 속에서 보호하신다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어떠한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십니다. 뒤돌아보면 한 해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모든 삶의 진정한 필요와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나눔

저(인도자)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기도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예시, 제 기도제목은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전체가 나눔 후) 나눔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